

# 이종범 '가을 부활'... 익어 가는 4강 꿈

고교 1학년 시절인 지난 93년, 제게 야구를 사랑하게 만든 대형 스타가 출현했습니다. 바로 이종범. 전 20승 투수와도 안 바꾼다는 종범성이 펼쳐마다, 칠때마다 모든 장면이 눈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6년. 시즌 초 종범성이 계속된 부진으로 2군을 오가는 동안 각종 야구 관련 인터넷 게시판엔 '이제 은퇴해야', '한물갔다' 라는 등 나쁜 글들만 나돌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종범신(神)'을 무시하는 글에 댓글을 달며 아직은 살아있다고 외쳤습니다. 약물에 남몰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산전,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종범성은 그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홀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범성은 영원히 제 가슴 속의 영웅입니다.

최근 5경기서 21타수 8안타 불방망이 과시  
KIA, 두산 추격의지 꺾고 연승행진 신바람

지난 주말 KIA의 잠실 두산전 3연승 이후 KIA타이거즈 인터넷 홈페이지 '호사방'에 올라온 한 팬의 글이다. 이 팬의 글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동감의 댓글과 함께 이종범의 부활에 찬사를 보냈다. 팬들의 칭찬 댓글처럼 '바람의 아들' 이종범(36·사진)이 시즌 막판 KIA의 4강행을 돕고 있다. 이종범의 시즌 타율은 0.235로 다소 저조하지만 지난 16, 17일 두산 3연전 포함 최근 5경기서 타율 0.381(21타수 8안타, 4타점, 2득점)로 필살을 날리고 있다. 이종범이 살아나면서 KIA도 19일 현재 4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사실 이종범은 올 시즌 두 차례나 2군행을 오가는 치욕스런 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종범에게는 약풍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KIA로서도 전력상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준플레이오프' 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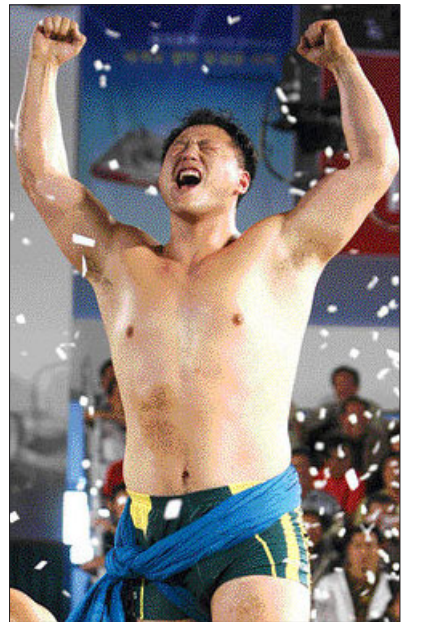
불린 '4강 경쟁자' 두산과의 더블헤더에서 '스타' 이종범은 부활했다. 그를 믿어준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이날 KIA엔 1만 3천여명이 모인 잠실 구장 3루쪽 관중석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종범을 외치는 응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종범은 이날 그를 믿어준 팬들의 응원에 확실하게 화답했다. 그는 이날 1, 2차전에서 8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을 터트리며 2승을 견인했다. 경기도 중 다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결승 타점을 때려내는 투혼도 보여줬다. 이종범은 "WBC 대표팀 차출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고 세계 치러다 보니 오히려 안 맞았다. 2군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 욕심을 버리고 가볍게 치니 맞아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한달간 비운 빛(2군행)을 갚도록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문찬식 생애 첫 한라장사

■ 금산인삼장사씨름

'신애' 문찬식(24·현대삼호중공업)이 생애 처음으로 꽃가마를 탔다. 문찬식은 19일 오후 충남 금산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3일째 한라장사 결정전(3판 다승제)에서 김종남(여수시청)을 2-0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2004년 1월 현대삼호중공업에 입단한 문찬식은 이로써 정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한라장사 감자로 우뚝 섰다. 문찬식은 결승에서 경기 시작 3초 만에 되치기로 첫판을 이긴 뒤 두 번째 판에서도 김종남을 들어찍기로 단승에 몰래 판에 누이며 황소 트로피를 차지했다. 문찬식은 경기 후 "지금까지 결승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라장사까지 차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면서 "앞으로 한라장사 감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3판 전에서는 '몸짱' 조범재(맥섬석GM)가 서강원(구미시청)을 제



19일 열린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문찬식(현대삼호)이 김종남(여수시청)을 누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쳤고 4-5품 전에서는 천홍준(현대삼호중공업)이 한라장사에서 통산 14차례 정상에 올랐던 팀 동료 김용대를 각각 제압했다. /최재호기자 lion@



미국-유럽 '골프전쟁' 22일 개막 라이더컵에 출전하는 미국팀의 타이거 우즈가 19일 팀 동료인 짐 퓨릭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라운드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대륙간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겨루는 대회로 2년마다 열리는 '골프 전쟁'으로 불리는데 지난 2004년 대회는 유럽팀이 우승했다.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아일랜드 K클럽에서 열린다. /로이터=연합뉴스

## 최경주, 정상급 선수 빠진 텍사스 오픈 참가

### "우승 절호의 기회다"

우즈 등 대부분 라이더컵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거머쥘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생애 네 번째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21일(한국시간) 오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라칸테라골프장(파70·6천974야드)에서 개막될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웅만한 강호들이 유럽-미국 대항전인 라이더컵에 나서느라 자리를 비운 덕에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 텍사스오픈 출전자 명단에는 세계랭킹 30위 이내 선수가 단 1명도 없다.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가 38위 바트 브라이언트(미국)이

며 최경주(51위)가 출전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순위가 높다. PGA 투어 상금랭킹 상위권이라야 20위 브렛 웨더릭(미국)과 26위 딘 윌슨(미국)이 겨우 눈에 띌 뿐 30~50위권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실정이다. 올해 '톱 10' 입상 횟수가 세 차례 밖에 없는 최경주는 상금랭킹이 60위로 밀려 있지만 출전 선수 면면을 보면 우승 욕심을 얼마든지 부릴 만하다. 더구나 지난해 크라이슬러클래식 우승에 앞서 출전한 여덟 차례 대회에서 세 차례나 컷오프되고 40위가 최고 성적이었다던 최경주는 올해도 다소 부진했던 성적을 단번에 만회할 찬스로 여기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대 상금 7억 한국오픈골프 내일 개막

역대 최고의 상금을 내건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이하 한국오픈)가 21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파71·7천62야드)에서 열린다. 특히 49회째를 맞는 올해 한국오픈은 상금 규모가 사상 최대다. 총상금 7억원에 우승 상금은 2억원이 내걸렸다. 우승자의 몫은 작년의 2배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한국의 영건' 나상욱(23·코오롱)과 일본프로골프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 세계골프랭킹 6위 레티

프 구센(남아공), PGA 투어 장타왕 비바 왓슨(미국)이 초청됐다. 이들과 국내 시드권자, 아시아투어 선수 50여명을 포함해 10년만에 부활한 예선전 통과자 10명 등 140여명이 우열을 가린다. 관심사는 4년만에 국내 선수가 되찾은 내셔널타이틀을 지킬 수 있는느냐다. 작년 '독사' 최광수(46·동아제약)가 연장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해 2002년부터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존 말리, 에드워드 로어(이상 미국)에게 차례로 내줬던 우승컵을 가져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함평다이너스티CC 주중 회원권 분양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2천만원, 법인 4천만원

세계적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파 72·7,130야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중회원권을 분양한다. 주중회원권 모집구좌는 개인과 법인 포함 299구좌이며 입회금액(분양가)은 개인 2천만원(1구좌 1인), 법인은 4천만원(1구좌 2인)이다. 납입방법은 개인의 경우 계약금 200만원, 법인은 400만원을 납부한 뒤 잔금은 계

약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주중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그린피는 1인 5만5천원이며 2년 만기후 반환요청을 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주고 양수, 양도(1년 경과 후)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입회신청서(당사 소정양식)와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법인은 입회신청서(당사 소정양식)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장이 필요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관계자는 "세계적 푸른 최고의 양잔디에서 골프를 즐기려는 골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중회원권 분양을 실시하게 됐다"며 "회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격있는 골프와 최상의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20-7800. 한편 함평다이너스티CC는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동안 휴장 없이 정상영업한다. 특히 추석당일인 10월 6일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돼 내장객들이 모든 서비스를 받으며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